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오늘부터 가능

금융위, 53개 금융사 10억 이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비교플랫폼·금융사 앱에서 가능 조건 비교해 유리한 대출 이동

3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플러스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를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지만,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은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의 앱이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내달 이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갈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 내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철 수산물 만나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수산매장에서는 31일부터 '바다의 날' 맞이 제철 수산물 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복, 멍게, 바지락 등 신선한 해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중기 68.6%, 최저임금 인상시 '인력 구조조정'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에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60.8%는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7.8%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동결' 38.3%, '인하' 2.6%, '1% 내외 인상' 21.2%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55.2%)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 (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 (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 (10.2%) 순으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김문식 위원

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고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고용 혼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6월 지역 중기 경기전망, 5개월만 하락

SBHI 81.9...전월비 0.2p ↓

수출 부진·경제 불확실성 영향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오던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다시 소폭 하락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 213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중소기업 연합 경기전망지수(SBHI)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82.1) 대비 0.2p 하락한 81.9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1월 70p대(77.8)로 떨어진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 부진세 및 불확실한 경제상황 지속으로 체감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9.2) 대비 0.6p 하락한 78.6, 전남은 전월보다 0.4p 오른 동일한

85.4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0.8로 전월(84.5) 대비 3.7p 하락했으나 비제조업은 83.3로 전월(79.2) 대비 4.1p 올랐다.

항목별로 ▲내수판매(84.9→81.5) ▲자금사정(88.1→75.6) ▲경상이익(82.5→78.4) ▲수출(88.9→85.2)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6.4→98.4)까지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지역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애로는 '내수 부진' 응답 비중이 5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4.0%) ▲원자재 가격상승(47.4%) ▲업체간 과당경쟁(33.3%)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29.6%)이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1.0%로 전월 대비 1.4%p 상승했다.

80% 이상을 정상 가동으로 보지만 광주는 68.3%, 전남은 74.0% 수준에 머물렀다.

/홍승현 기자



농신보 나주센터가 최근 나주시 산포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신보 나주센터 제공

농신보 나주센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지원

산포면 청양고추 농가서

고추 선별·포장 작업 도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센터장 정길조)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나주시 산포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나주센터는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는 청양고추 농가를 찾아 출하를 앞둔 청양고추의 선별 및 포장 작업에 힘을 보탰다.

또한, 농신보 이용에 대한 농가의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진행했다.

정길조 센터장은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농신보 보증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범농협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한국광기술원,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광융합산업 핵심 인재 양성 박차

한국광기술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3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패 수여식 및 포럼' 행사에서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인프리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률 증대와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한다. '자율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기관 중 2년 연속 성과평가 상위 20%에 속한 모범 사업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2014년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5,500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최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는 등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은 "앞으로도 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광



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

내달 2일 '더 시너지 첨단' 서

지역의 다양한 공예품과 수제 식음료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판매하는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가 내달 2일부터 열린다.

30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사흘 간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최근 20~30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더 시너지 첨단'에서 진행된다.

더 시너지 첨단은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이동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광주광산구 지역의 핵심 상권이다.

이번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는 광주 지역 공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과 공예

분야 소상공인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공방이 참여해 다양한 공예상품과 식음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가죽, 레진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이외에도 슈가크래프트, 꽃차 등 식료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과 평소 찾아볼 수 없었던 개성있는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블로그(<https://blog.naver.com/o-hands>), 인스타그램(@_ohands)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공고·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승현 기자